

손은 운전대, 눈은 휴대폰 위험한 운전...불안한 승객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들
운전 중 유튜브 시청·통화 빈번
광주·대전 운행 고속버스 기사
2시간 동안 동영상 보다 징계도
반응 속도, 음주운전과 비슷
대형사고 우려...단속 강화해야



최근 운전 도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15일 오전 택시기사 한 명이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15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임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여·35)씨는 집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내릴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

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내내 휴대폰을 거치대에 고정해 놓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목에 운전대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김씨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10여분 동안 유튜브를 보고 깔깔 웃는 등 동영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운전 도중 징정도 2차례나 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에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 사이에 운전 도중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하는 '위험한 운전'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7년 326건, 2018년 161건, 2019년 385건 등 총 872 건에 이른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신호대기 등 차량이 멈춰있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 중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최근 휴대폰으로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

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영상이 크게 늘면서 운전 중 동영상 시청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운전이 직업인 택시나 버스기사 등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차량 내에서 보내는 탓에 동영상 시청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고 있다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엔 광주종합터미널에서 대전유성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거치대에 끼우고 2시간 가까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 자체 징계처리 됐고, 같은 해 8월에도 광주와 순천을 오가는 시외버스 기사 한 명이 30분을 태운 채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노출돼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1%(소주 반병) 음주운전자와 비슷해 사고시 대형 인명피해 입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15점)과 소액의 범칙금(버스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3만원)만 부과될 뿐이다.

광주교통문화연구소원 백승권 과장은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전방 주시를 하지 못

해 안전에 대한 자각의식이 떨어져 사고 발생시 사망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특히 휴대폰을 만지게 되면 순간 핸들 조작 능력이 떨어져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업체나 운전자들 대상으로 한 행정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대중교통을 관리하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에서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민원 발생시 버스·택시회사에 운전운행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한영 기자 young@

'전두환 재판' 부장판사 사직...재판 차질

장동혁 부장판사 총선 출마할 듯
2월말 인사 후 새 재판부 구성

신문이 연기됐으며 다음 달 24일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전두환씨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담당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고, 세 번째 재판부가 전씨의 사저명예훼손 사건을 맡게 됨에 따라 재판 일정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장 부장판사는 16일부터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지역 언론 등에선 장 부장판사가 오는 4월 대전·충남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 사퇴 시한(1월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 등이 나오고 있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2018년 국회 파견을 거쳐 2019년 2월 광주지법으로 왔다.

장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전씨의 사저명예훼손 사건 재판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전씨 재판의 증인

이 진행됐고 증인신문만 8차례에 걸쳐 이뤄져 새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호석 판사가 지난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긴 후 장 부장판사도 부임 1년이 채 안 돼 시작하면서 세 번째 재판장이 사건을 맡게 됐다. 새 재판장은 남은 증인신문 마무리와 증거 조사 범위·방식·일정 결정은 물론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말 끝판·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앞서 장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100여 명이 동원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임직원 무더기 기소

5명 구속·82명 불구속기소

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수사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사건에 연루된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8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대기업 임직원 3명과 측정 대행업체 임직원 2명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직원 14명 등 8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4월 영산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출업체 12

1차 수사 결과, 검찰은 지난해 7월 배출업체 공장장과 임원, 측정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9월 2차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배출업체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측정대행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 등 12개 사업장은 조작된 측정값을 환경 당국에 제출하다 적발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2명 학대했다" 부모가 신고

여수경찰, 수사 나서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여수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2명을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은 경찰에 재공판지를 준비하던 중 교사

가 자녀를 구타하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의혹을 받는 어린이집 교사는 사표를 냈다. 경찰은 조만간 교사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이제 접수돼 피해 조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아동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금은방서 손목에 금팔찌 찬 채 도주한 중학생 구속

광주북부경찰 15일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A(16)군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360만원 상당의 금 15돈 손목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가출해 모델에서 생활해온 A군은 모델비와 사비 등 이른바 가출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팔찌를 살 것처럼 금은방 주인을 속이고, 손금 팔찌를 찬 상태로 달아났다.

A군은 앞서 지난 5일에도 광주시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동종 수법으로 530만원 상당의 손금 팔찌를 훔친 혐의로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이지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폭행 의혹' 가수 김진모 경찰 출석...피의자 신분



○...서울강남경찰은 15일 인기가수 김진모(52)씨가 여성을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앞서 강홍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6월 김씨가 과거 토크쇼에서 일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A씨는 사흘 뒤 강 변

호사를 통해 김씨를 고소.

○...경찰은 지난해 14일 A씨를 8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씨를 첫 소환했으며, 김씨의 소속사 견습기획은 "A씨가 김씨의 27년 연애 활동을 악의적인 도로 폄하하고 거짓사실을 유포, 많은 분께 실망을 끼치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개월 무이자 기간에 2.4%~4.4%로 저금리 대출
-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서민을 위한 특별 혜택
-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지원
-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지원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정정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관동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